



C - HW4

임베디드스쿨1기

Lv1과정

2020. 08. 21

박하늘

1. 포인터

- 1) 메모리 주소값을 담는 변수
+ 포인터에는 자료형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다.

1-1. ampersand(&) : 주소연산자

- 메모리 주소 명시
-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그 주소값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, 특정 변수의 포인터를 구하기 위해서 “&”를 사용한다.

1-2. *: 참조연산자

- 해당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의 값
- 포인터를 통해서 기억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.
- 참조 연산자로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: 포인터가 가리키는 기억공간을 사용하거나, 기억공간의 값을 사용한다.

```
int a = 10, b = 20;
```

```
*&a = *&b //변수 b에 저장된 값을 변수 a의 기억 공간에 기억
```

```
printf("a의 값: %d",a);
```

→ *&a: 기억공간을 사용 / *&b: 기억공간의 값을 사용

1. 포인터

1) 메모리 주소값을 담는 변수

1-1. ampersand(&) : 메모리 주소 명시

1-2. *: 해당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의 값

```
#include <stdio.h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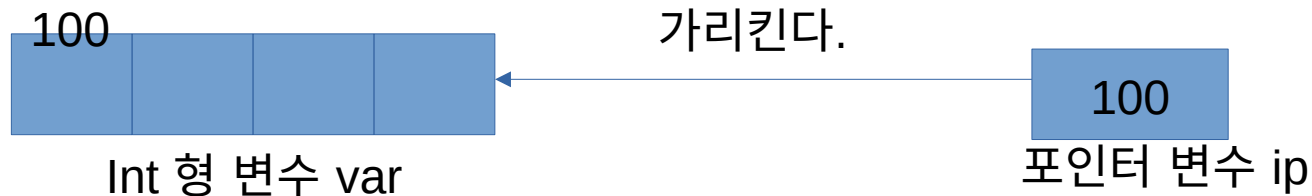
int main(void){
    int var = 20;    //포인터를 구할 변수
    int *ip;         //포인터를 저장할 변수
    ip = &var;       //var의 포인터를 구하여 포인터 변수 ip에 저장한다.

    printf("Address of var variable: %x\n", &var);
    printf("Address stored in ip variable: %x\n", ip);
    printf("Value of *ip variable: %d\n", *ip);    //해당 주소의 값을 불러옴

    return 0;
}
```

```
Address of var variable: 1957528c
Address stored in ip variable: 1957528c
Value of *ip variable: 20
```

ip가 포인터를 저장하면



1. 포인터

1) 메모리 주소값을 담는 변수

1-1. ampersand(&) : 메모리 주소 명시

1-2. *: 해당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의 값

```
#include <stdio.h>

const int MAX = 3;

int main(void){
    int var[] = {10, 100, 200};    //배열 초기화
    int i, *ptr;                  //인덱스, 포인터 변수 선언

    ptr = var;                    //배열의 시작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

    for (i=0; i < MAX ; i++){

        printf("Address of var[%d] = %x\n", i, ptr);
        printf("value of car[%d] = %d\n", i ,*ptr);

        ptr++;

    }
    return 0;
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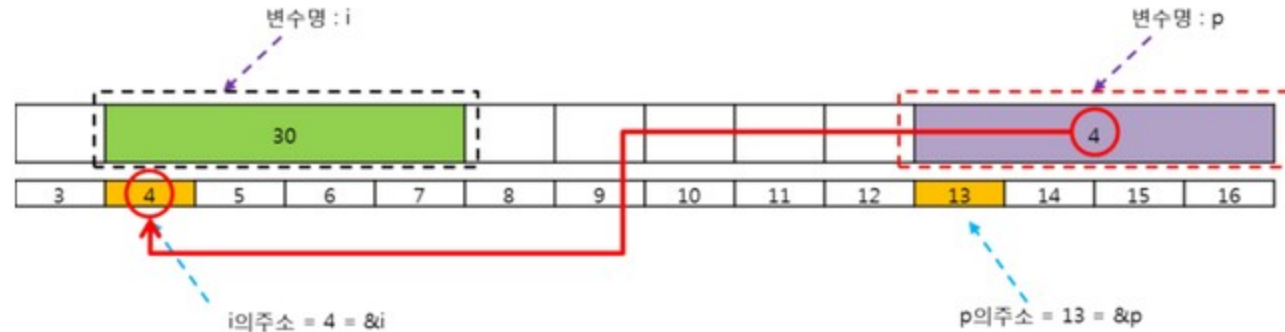
Address of var[0] = a4ba569c
value of car[0] = 10
Address of var[1] = a4ba56a0
value of car[1] = 100
Address of var[2] = a4ba56a4
value of car[2] = 200

Int *ptr = &var[] //배열의 첫번째 항목주소가 전체 배열의 시작주소
Int *ptr = &*(var+0) //배열을 포인터 기법으로 변경
 = &*var
 = var

2. 이중 포인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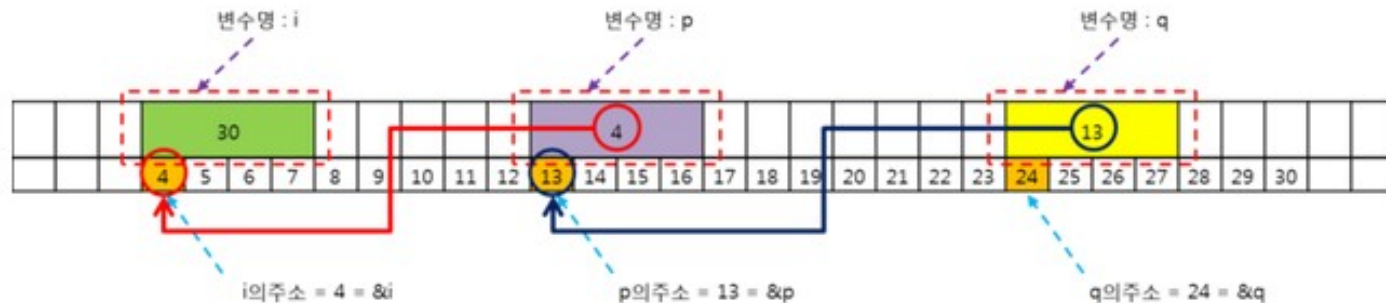
1)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값이다.

```
int i = 30;  
int * p = &i;
```



→ p는 i의 주소값 4를 가지고 있고, p가 i를 포인팅하고 있다. 따라서, p를 이용해 i를 조작할 수 있다. 이를 한번 더 밟은 것이다.

```
int i = 30;  
int *p = &i;  
int **q = &p;
```



*p 는 i 를 나타낸다.
*q 는 p 를 나타낸다.
그러므로

→ (*q) 는 i 를 나타낸다. 인터인데, q는 포인터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. 즉, p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. 결론적으로 **q = *p = i 가 된다. q는 p를 포인팅하고, p는 i를 포인팅한다. (**q = *p = i)

3. 포인터배열

- 1) (포인터)(배열) = 포인터배열은 포인터로 이루어진 배열이라는 뜻이다.
아래 그림에서 자료형이 char* (포인터)인 배열, 그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3개

```
#include <stdio.h>

int main(void){
    const char* arr[3];
    int i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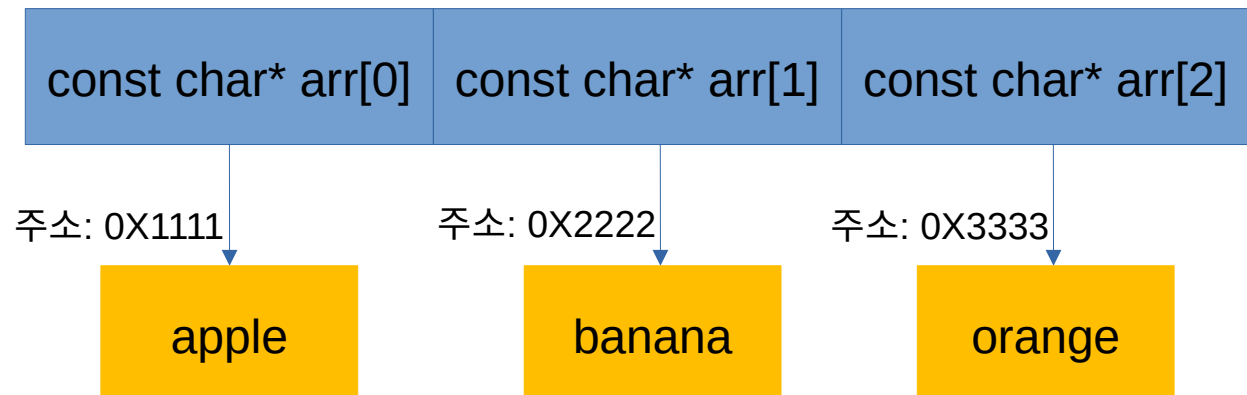
    arr[0] = "apple";
    arr[1] = "banana";
    arr[2] = "orange";

    for (i = 0; i < 3; i++)
    {
        printf("arr[%d] 는 %s\n", i, arr[i]);
    }
    return 0;
}
```

```
arr[0] 는 apple
arr[1] 는 banana
arr[2] 는 orange
```

- 2) 그림표현

Const char* arr[3]



4. 배열포인터

- 1) (배열)(포인터) = 배열포인터는 배열만 가리키는 하나의 포인터라는 뜻이다.
아래 그림에서 char타입의 인덱스 3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,
그냥 하나의 포인터

```
#include <stdio.h>
int main(void)
{
    int i;
    char (*arr)[3];

    char tmp[3] = {'a', 'b', 'c'};
    printf("tmp[3]의 주소:%p\n", tmp);

    arr = &tmp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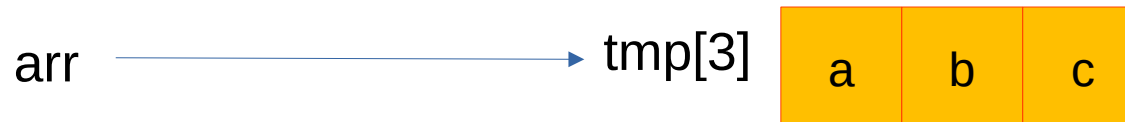
    printf("arr의 주소: %p\n 문자열:", arr);
    for (i = 0; i < (int)sizeof(*arr); i++)
    {
        printf("%c", (*arr)[i]);
    }
    printf("\n");
    return 0;
}
```

```
tmp[3]의 주소:0x7fff214fab75
arr의 주소: 0x7fff214fab75
문자열:abc
```

- 2) 그림표현

Char (*arr)[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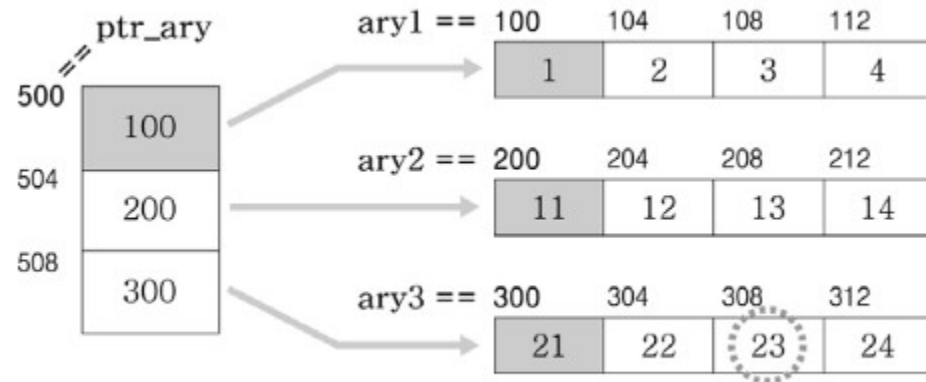
주소: 0x7fff214fab75



4. 배열포인터 - 2차원 배열 표현 방법(1/3)

1) 1차원 배열의 배열명을 포인터배열에 저장하면 포인터배열을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.

```
int ary1[4]={1, 2, 3, 4};  
int ary2[4]={11, 12, 13, 14};  
int ary3[4]={21, 22, 23, 24};  
int *ptr_ary[3]={ary1, ary2, ary3};  
// 각 배열명을 포인터배열에 초기화한다.
```



(각 기억공간의 주소값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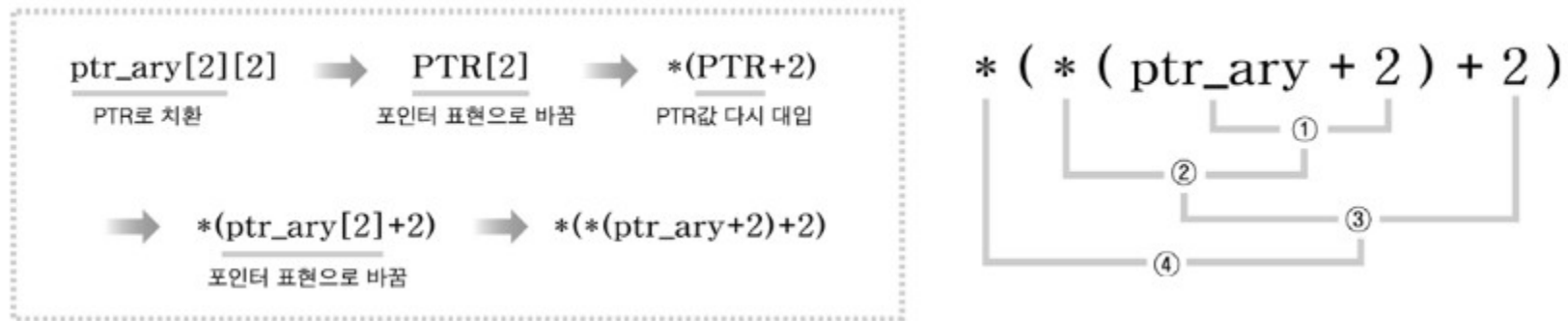
- ary3배열의 세 번째 배열요소(23값)를 참조하는 과정

1. 먼저 `ptr_ary` 배열의 세번째 배열요소를 참조한다.
→ `ptr_ary[2]`

2. 참조된 배열요소 `ptr_ary[2]`는 배열명 `ary3`을 저장한 포인터변수이므로 배열명처럼 사용하여 `ary3`의 세번째 배열요소를 참조한다.
→ `printf("%d", ptr_ary[2][2]);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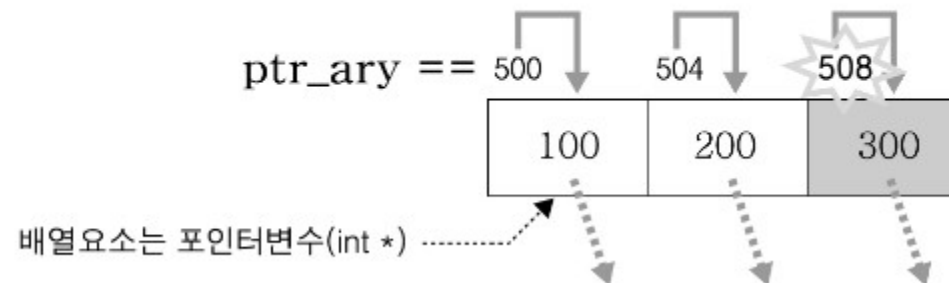
4. 배열포인터 - 2차원 배열 표현 방법(2/3)

- 2) ptr_ary[2][2]가 참조되는 과정의 주소값을 계산해보자
- 일단 포인터표현으로 바꾸고 연산순서를 따라간다.



- ① 번 연산: 포인터배열의 세 번째 배열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구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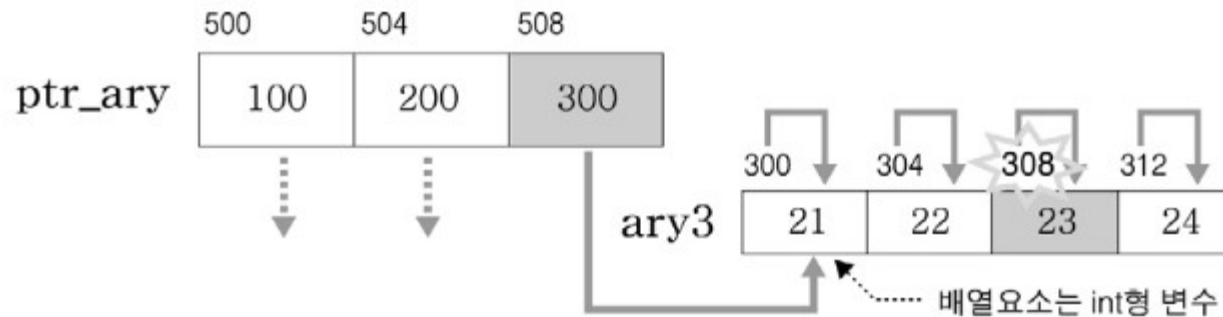
$$\text{ptr_ary}+2 = \text{ptr_ary}+(2*\text{sizeof}(\text{ptr_ary}[0])) = 500+(2*4) = 508$$



4. 배열포인터 - 2차원 배열 표현 방법(3/3)

- ② 번 연산: 포인터배열의 세번째 배열요소의 값 300번지가 구해진다.
- ③ 번 연산: ary3배열의 세번째 기억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구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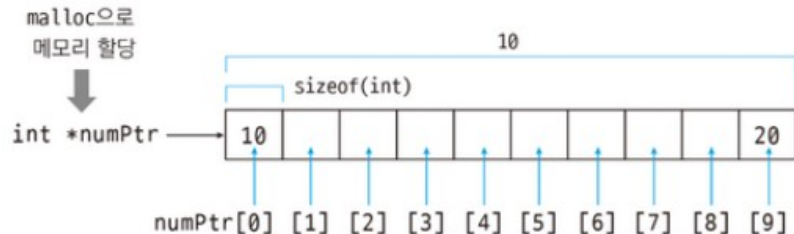
$$300+2 \Rightarrow 300+(2*\text{sizeof}(\text{ary3}[0])) \Rightarrow 308$$



- ④ 번 연산: 308번지는 포인터이므로 참조연산을 수행하면 값 23이 참조된다.

5. 동적할당 malloc, free

- 1) 포인터에 할당된 메모리를 배열처럼 사용한다. 포인터배열.
- 2) 자료*포인터이름 = malloc(sizeof(자료형)*크기);
- 3) malloc함수: 동적으로 할당하는 함수 (Heap영역에 메모리를 할당)
- 4) malloc은 메모리만 할당하는 함수이므로 개발자가 어떠한 데이터 형을 저장했는지 예측할 수 없다.
- 5) int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리턴되는 void*을 int*로 반환해야 한다.
- 6) 동적 할당 후 더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꼭 free함수로 메모리를 해제시켜준다.



```
#include <stdio.h>
#include <stdlib.h>

int main()
{
    int* numPtr = (int*)malloc(sizeof(int)*10); //int 10개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 할당

    numPtr[0] = 10;
    numPtr[9] = 20;

    printf("%d\n", numPtr[0]); //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하여 값 할당
    printf("%d\n", numPtr[9]);

    free(numPtr); //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해제

    return 0;
}
```

heap은 큰 크기의 데이터를 담고자 동적으로 할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지칭한다.

- 장점: 상황에 따라 원하는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되므로 경제적이며, 이미 할당된 메모리라도 언제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.
- 단점: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.

10
20

HW. 포인터 - 메모리 맵핑 시키기

아래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시오

```
int main(void)
{
    int a[2][3] = {{0,1,2},{3,4,5}};
}
```

- 1) &a = 0x1000
→ a의 시작주소
- 2) &a+1 = 0x1024
→ a의 배열의 크기가 다 끝난 다음의 처음 시작 주소
- 3) a+1 = 0x1012
→ a[0][0] = a
→ a[1][0] = a+1
- 4) *a = 0x1000
→ a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: a배열의 주소
- 5) *a+1 = 0x1004:
→ *a배열의 주소에 int형 4byte를 더한
- 6) **a = 0
→ a의 배열의 주소가 가리키는

Memory	
0X1000	0
0X1004	1
0X1008	2
0X1012	3
0X1016	4
0X1020	5
0X1024	
0X1028	

6. 구조체 struc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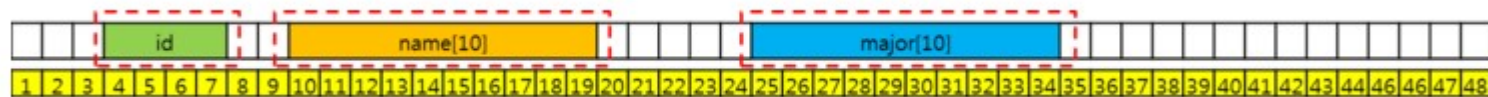
1) 정의: C언어에서 유일한 객체지향언어의 클래스(Class)개념을 가진 자료형(data type)이다.

```
struct myName
{
    원하는 자료형;
    원하는 자료형;
    원하는 자료형;
    ...
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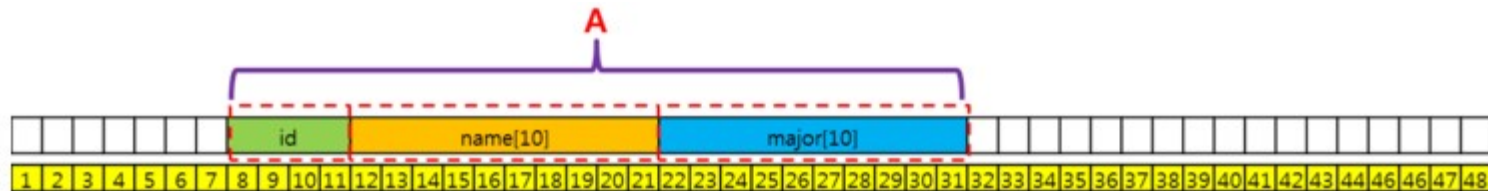
```
struct student
{
    int id;
    char name [10] ;
    char major [10] ;
}
```

```
typedef struct Student{
    char name[20];
    int age;
}Student;
```

만약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변수들을 선언하면 아래와 같이 빈 공간에 있는 곳에 할당 된다.



하지만, 구조체를 정의하면 id, name, major 3가지를 모두 묶어서 A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 가능.



2) 구조체 멤버 접근:

구조체 변수명.멤버명

```
struct student A;
A.id = 20150921;
strcpy(A.name, "전지현");
strcpy(A.major, "영화학");
```

3) 초기화

```
struct student A = {20150921, "전지현", "영화학"};
```

7. 공용체 union

1) union은 struct와 달리 메모리를 공유한다. 메모리가 부족할때 많이 사용된다.

```
#include <stdio.h>
union student{
    int age;
    double grade;
}person;
int main(void)
{
    union student person = {20}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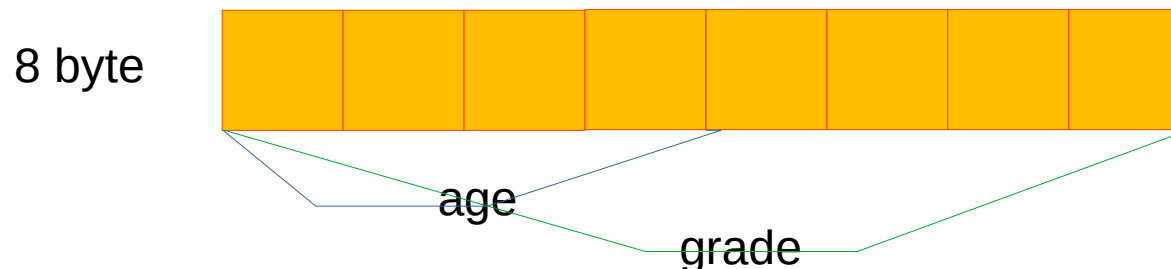
    printf("나이%d\n", person.age);
    person.grade = 90.25;
    printf("평균: %lf\n", person.grade);
    printf("평균사용중 나이: %d\n", person.age);
    return 0;
}
```

```
나이 20
평균: 90.250000
평균사용중 나이: 0
```

첫번째 멤버변수 age만 20으로 초기화가 된다.

또한, age를 사용하다가 grade를 사용하면 age값이 사라진다.

→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니온은 멤버변수 한번에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다.



8. bit fiel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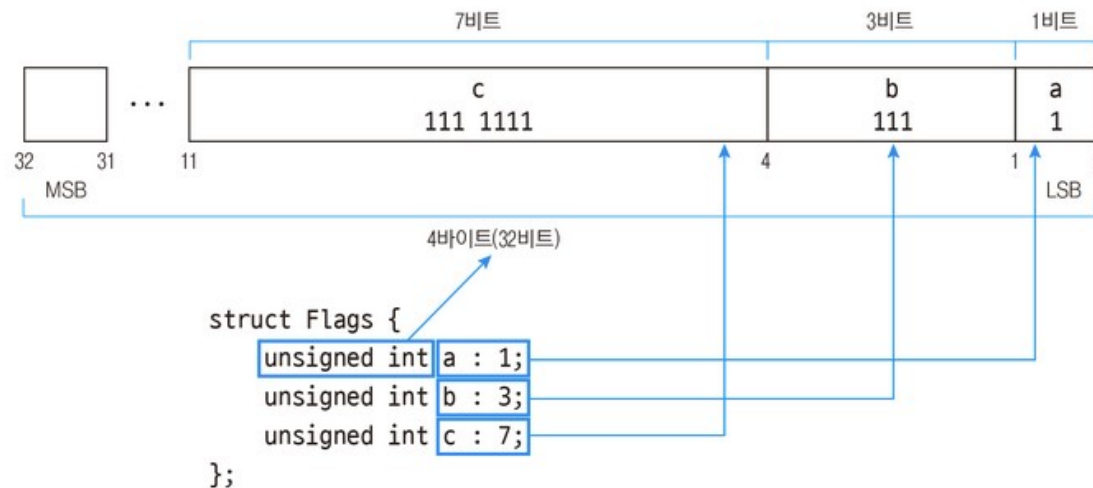
1) 구조체 비트 필드를 사용하면 구조체 멤버를 비트 단위로 저장할 수 있다.

```
struct 구조체이름 {  
    정수자료형 멤버이름 : 비트수;  
};
```

```
#include <stdio.h>  
  
struct Flags{  
    unsigned int a : 1;  
    unsigned int b : 3;  
    unsigned int c : 7;  
};  
  
int main()  
{  
    printf("%d\n", sizeof(struct Flags));  
    return 0;  
}
```

4

2) 비트 필드의 멤버를 unsigned int로 선언했으므로 구조체의 크기는 4가 된다.



3) 비트 필드의 각 멤버는 최하위 비트(Least Significant Bit, LSB)부터 차례대로 배치된다. 따라서 a가 최하위 비트에 오고 나머지 멤버들은 각각 상위비트에 배치된다.

HW. 구조체 + 공용체 + bitfields Register Flag

1) 비트필드는 하위비트부터 순서대로 설정된다. 즉, 상위비트에 먼저 값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선언 순서를 반대로 해야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.

2) 주소연산이 불가능하다. 메모리상의 주소는 바이트단위이므로 비트단위인 비트필드의 경우 주소연산자를 붙일 수 없다. Scanf 사용불가능함.

3) 선언에서 필드명을 적어주지 않은 필드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. 예를들어, VDDThShutdown의 앞뒤 3/1 비트는 사용불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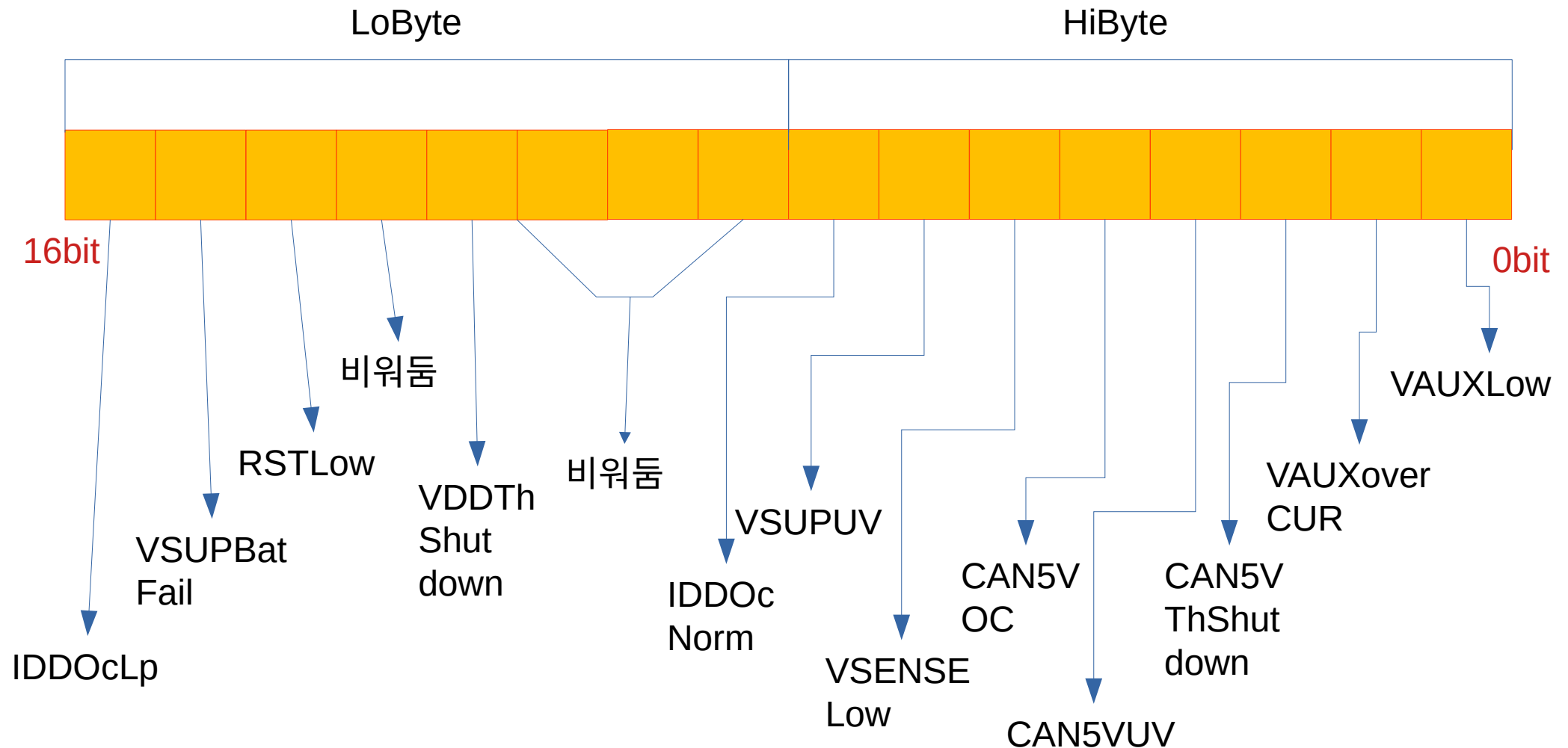
```
typedef union
{
    UINT16 ALL;
    struct
    {
        UINT16 Hibyte : 8;
        UINT16 Lowbyte : 8;
    }Byte;

    struct
    {
        UINT16 VAUXLow :1;
        UINT16 VAUXOverCUR :1;
        UINT16 CAN5VThShutdown :1;
        UINT16 CAN5VUV :1;
        UINT16 CAN6VOC:1;
        UINT16 VSENSELow :1;
        UINT16 VSUPUV :1;
        UINT16 IDDOcNorm :1;

        UINT16 : 3;
        UINT16 VDDThShutdown :1;
        UINT16 :1;
        UINT16 RSTLow :1;
        UINT16 VSUPBatFail :1;
        UINT16 IDDOcLp :1;
    }Bit;
}USBCREGFlag;
```


HW. 구조체 + 공용체 + bitfields Register Flag

4)그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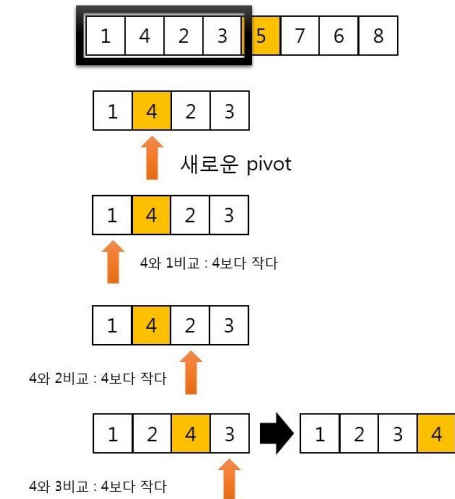
HW. Quick sort란?

1) sorting 알고리즘 중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

→ 기본적으로 $O(N^2)$ 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순회를 하면서 복잡해진다.

반면 퀵소트는 직관적으로 비교해 반씩 줄여나가는 재귀를 이용한 분할정복 알고리즘이다.

2) idea: 특정한 기준을 pivot이라고 하고, 이 pivot을 기준으로 pivot보다 작으면 왼쪽으로,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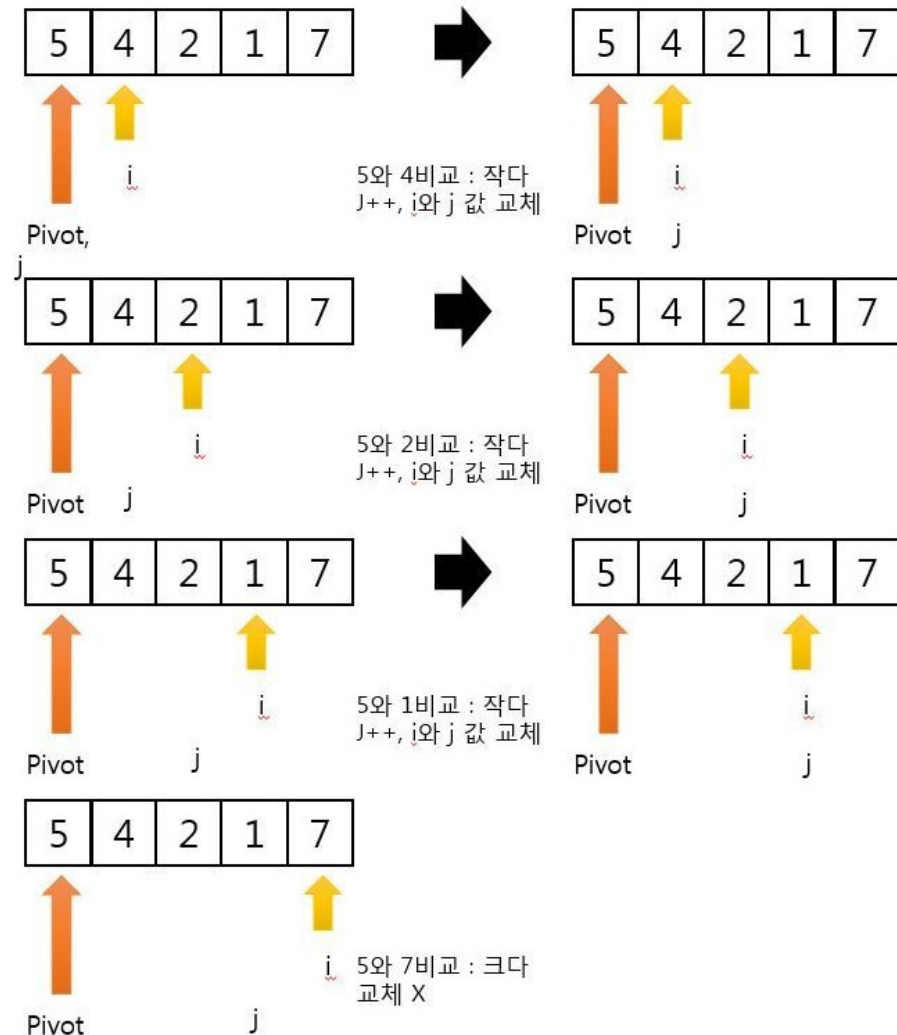


이제 이렇게 되면 5의 왼쪽과
오른쪽끼리는 섞을 필요가 없다.

남은 구간도 나누어서
분할처리하여 정렬하면 된다.

HW. Quick sort

3) 실제 구현에서는, Pivot과 j는 첫번째로 두고, i는 j+1로 두었다.
i와 pivot을 비교하여 작으면 pivot의 왼쪽으로 보낸다. 왼쪽으로 보내는 것을 j 변수로 설정했다. (pivot:기준, i:비교할 값, j: 교체할 값)



실제 4~7까지 pivot인 5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바뀌어지는 수가 없어진다. 이제 마지막 과정인 pivot과 j를 교체하자.



이제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렬하면 된다.